

대구시 신청사 건립 두고 지자체간 경쟁 '치열'

신청사공론위, 엄격한 패널티 적용 의지 강조 공론민주주의 도입... 시민참여형으로 결정 달성군, 대구시 신청사 유치 '본격 드라이브'

최근 출범한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이하 신청사공론위·위원장 김태일)는 1차 회의에서 유치 과열 행위에 대해 감점 등의 제재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신청사 건립은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됐으나 경제적인 문제와 구·군 과열 경쟁으로 2차례나 좌초됐던 전례가 있다.

이에 신청사공론위는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로 각 구·군 과열경쟁을 지목하고 심리적 선동을 동반하는 과열경쟁으로 이른바 '집단편향성'을 높여 공론과정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결과의 수용성을 악화시킨다고 판단, 제재방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구 중구는 최근 이와 관련한 반발 보도 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며 사실상 제재 거부 방침을 밝힌 가운데 희망 유치 지역인 달성군과 북구, 달서구도 제재에 따르지 않겠다는 눈치다.

이를 두고 신청사공론위는 공론민주주의를 도입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설명회, 토론회 등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

갈 계획이다.

신청사공론위에 따르면 각 구·군별 누적 감점점수 경우 12월 실시되는 시민참여단 평가점수에서 공제된다. 산출된 최종점수 최고득점지가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다. 즉 과열행위 감점이 유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앞서 신청사공론위는 과열 행위를 조기에 바로 잡기 위해 각 구·군에 1차 회의에서 결정한 감점대상 행위들을 공지한 바 있다.

단, 감점점수는 민감하고 중요 사항이므로 전문 용역기관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법률자문 등을 거쳐 위원들의 검토를 통해 오는 5월 3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일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신청사의 위치는 오로지 시민참여단 250명이 결정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건전한 공론의 장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마련하고 공론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입지 선정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불필요한 형세 낭비와 시민사



대구신청사 유치와 관련해 각 시·구·군 과열 유치행위에 대한 패널티 적용이 들어간다. 사진제공=대구시

회 분열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공론과정을 저해하는 과열경쟁을 엄격히 통제해 또다시 신청사 건립이 중단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는 과열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대구시 신청사 유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군은 지난 11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국화홀)에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100명의 추진위원이 달성군 회원을 신청사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발대식으로 달성군 회원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최적지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동시에 시민과 함께하는 입지타당성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이날 발대식은 김문오 달성군수가 직접 달성군 유치 당위성을 설명한 후, 100인의 유치위원 신청사 유치 결의문 낭독, 주민 1000명의 최적지 회원 현장 방문과 회원 시가지 가두행진으로 신청사 유치차오를 다졌다.

김 군수는 "회원 144분양홍보관 부지는 지리적으로 대구의 중심부이자, 인근 달서구 서·남구를 포함한 대구 인구의 반 이상이 거주하고 대구 전체 면적의 절반이 있는 실질적인 대구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 1호선(설화명곡역), 고속도로, 국도 5호선이 인접할 뿐 아니라, 대구산업선철도도 예정된 지역"이라며 일부 교통 접근성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자면 기자 daily1220@meconomynews.co.kr

간판개선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김천시

김천시는 김천역 주변간판개선사업과 자산로옥외광고시범거리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9일 간판개선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협상적격자로 (주)은진(군포 업체)·가나광고(김천업체), 한스앤어소시에이츠(구미업체)·에이스광고(김천업체)를 선정했다.

김천시는 협상적격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를 공고한 결과, 김천역 주변간판개선사업은 4개 업체, 자산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3개 업체가 각각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천시 간판개선사업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대학교수, 관계공무원 등 관련전문가 7명으로 구성해 기획력, 기술력, 사후관리 3개 항목을 9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평가했다.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주)은진·가나광고는 김천역 주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김천역-구 영빈역까지 1km 구간 13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스앤어소시에이츠·에이스광고를 용암사거리-삼각로터리 일원 0.8km 구간 89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디자인 및 교체 실시한다.

김천시는 "앞으로 쾌적한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간판정비사업 및 가로시설물 정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탁 기자

경북도,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준비 '착착'

주민의견 수렴, 특구계획 보완·신청 준비 신규 투자유치·일자리·경기회복 기대

경북도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에 제출할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공고한다.

공고기간은 4월22일부터 5월 22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특구계획을 열람하고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5월7일 포항시청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8일에는 도청에서 지역혁신회의를 열어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는다.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는 에코프로GEM, 포스코케미칼 등 지역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사업화의 장애를 겪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급증하는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 자원순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부에서도 친환경차 배터리에 대한 자원순환 방안과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는 국가의 정책아젠다에 대한 지역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측면도 갖고 있어 향후 선정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구계획서의 주요내용은 대기환경법 및 국유재산법 등의 관련규정 미비로 리사이클 대상이 되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고 품질인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

해 친환경, 안전처리기술을 실증하고 수년 후 산업화의 기반을 갖추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규정이 없어 사업화가 불가능한 영역에서 규제특구지정기간 동안 실증특례를 통해 산업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해 배터리 리사이클 분야의 세부법령 및 규정을 정비하는데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도는 약 한 달여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24일쯤 중기부에 지정신청할 예정이다.

순조롭게 진행돼 특구가 지정될 경우 가속기 기반 R&D환경-생산기업-리사이클 특구로 이어지는 배터리 클러스터의 밸류체인(Value-Chain)이 갖춰지게 됨에 따라 경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지역 내 에코프로GEM, 포스코

케미칼 외에도 성일하이텍, 단석산업 등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으로 이들 기업이 지역에 신규투자 할 경우 2023년까지 약 1천여 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현재도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에 사업자로 참여하고 싶다는 타 지역 기업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욱 커지는 한편 포항 지진 이후 철강경기 침체로 산업의 다각화가 필요한 포항경제에 이번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로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이후 법령정비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만큼 지역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강승탁 기자 meconomynews.co.kr

성주참외산업특구, 2018년 특구평가 대구·경북서 1위

성주군 참외산업특구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18년 특구평가에서 대구·경북 1위, 전국 우수특구로 선정돼 포상금 5천만원에 포함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196개 특구운영에 대한 성과를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이뤄졌고, 서면 및 현장심사, 중앙평가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성주군은 지난 2006년 2월 성주참외 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아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과 동시에 전국 참외가격 향상을 주도하는 유통 대혁신을 꾀해왔다.

참외박스 규격화 및 디자인 단일화사업, 저급참외 수매사업, 896억원의 참외 재배시설 자동화·현대화사업 등 다방면으로 추진한 참외산업이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성주참외 홍보관 건립, 6차 산업을 통한 참외가공품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에 성주군 참외재배농가의 70년 이상 쌓아온 풍부한 재배기술이 보태져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인정 받고 있다.

한편 성주군은 '2019 성주생명문화축제·제6회 성주참외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축제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성북읍 일원과 세종대왕자 태실에서 펼쳐지는데 올해 경상북도 지정축제로 선정되는 등 연간 40여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했다. 강승탁 기자 meconomynews.co.kr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지속발전가능한
활동해 중심도시 포항

시민중심 노선개편

편리해진 포항버스

- 신속성**
배차간격 단축
- 편리성**
시설 개선
- 효율성**
소외지역 불편해소

po-hang 포항시